

김옥희 구속 1주일… 풀리지 않는 의혹들

한나라 인사 개입 정말 없었나

왜 30억 입금 않고 갖고 있었나

또 다른 인사에 '공천 장사' 했나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여원을 수수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구속된 지 7일로 일주일이 됐으나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한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권이나 대한 노인회 등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없고 김씨가 사용한 돈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김 이사장이 실제 비례후보로 추천될 것으로 보고 허를 대답하게 30억여원을 모두 차지 하려 했던 것인지, 왜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을 즉시 입금하지 않고 수표로 갖고 있다가 공천 탈락 이후 자신의 계좌에 넣었다는 의문점은 남아있다.

◇김옥희 원맨쇼였나=우선 김 이사장이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

는 70대 중반의 김 씨에게 30억여원을 건네주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부탁했다는 점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뒤 즉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한동안 수표로 갖고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2월5일, 3월7일 세 번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받았지만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발표가 있던 3월24일 직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계좌에 20억원을 입금했고, 발표 직전 10억원을 넣었다. 처음 10억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라는 거액을 제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이다.

◇또 다른 미심쩍은 부분=김씨가 김 이사장 외에 다른 인사에게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이 두 사람에 앞서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도 접촉해 비슷한 제의를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이 최소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내고서라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피의자'가 아닌 단순 '사기 피해자'로 우선 봤다는 점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과 함께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달 이상이 걸린 절이다.

김 이사장이 공천됐더라면 30억원 중 공천 직전 입금한 10억원은 자신의 둘이었고 나머지는 정치권에 전달됐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또 다른 미심쩍은 부분=김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뒤 즉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한동안 수표로 갖고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는 김 이사

장으로부터 지난 2월5일, 3월7일 세 번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받았지만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발표가 있던 3월24일 직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계좌에 20억원을 입금했고, 발표 직전 10억원을 넣었다.

처음 10억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 사장, 감사원 해임 요구 무효 소송

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7일 정 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현 회장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백 변호인은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며 해임요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방송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면'한다"고 규정했으나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고 변경됐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백 변호인은 이어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위해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관련, 7일 정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법원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상 형식이나 입법 변경과정 및 목적에 비춰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령에서도 금품수수나 횡령, 배임 등 현저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해임 요구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세금 소송에 대해 감사원은 '홀속, 부당한 조기 종결'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연합뉴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 6일 선임된 김주완 한국전력기술 감사 역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선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이 있다.

이밖에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장후보 4명 중 임인배 전 한나라당 의원과 조명구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가 각각 김천과 영동포를에서 낙천한 경험이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과 달리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서 정직인 출신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감사 선임이 진행중인 기관도 많아 낙하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지경부 산하 기관에 한나라당 출신 인사 대거 선임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에 정치인 출신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한나라당 출신 신임 위원은 정광운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회 이재한 한국광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주완 한국전기기술 감사 등이다.

정광운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회 위원은 권철현 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정 감사위원은 4.9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됐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정 감사위원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데 반발해 5일째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선임된 이재한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총선에서 동해·삼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된 인물이다.

이 이사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총괄 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언제 어디서나
만날다!

국내
인터넷
동영
학상

에듀뷰
www.eduview.net
02)816-16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성 논란과 관련, 불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2박3일 일정으로 고향인 전남 지역의 유명사찰을 차례로 방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청와대와 전남지역 사찰들에 따르면 강 수석은 지난 6일부터 8일 까지 여를휴가를 내고 부인과 함께 사찰 순방에 나섰다.

강 수석 부부는 지난 6일 경남 하동 쌍계사에 들렀다가 인근의 구례 화엄사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날 오전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를 익달아 찾았다.

이어 오후 3시에는 해남 대흥사를 방문했고, 휴가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장성 백양사를 들린 뒤 상경할 예정이다.

강 수석이 이처럼 휴가 일정을 이동해 전남 지역의 대형 사찰을 익달아 방문하는 데는 최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불심(佛心) 달래기'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

적이다.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오는 23일 법불교 시국법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으로 '산문폐쇄' 등의 극단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사전에 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 수석의 사찰 순방(?)이 이뤄진 것 아니라는 꾼지 않은 시선도 있다.

강 수석은 이날 해남 대흥사 법각 주지 스님과 최근 시국과 불교계에

대한 내용으로 2시간 가량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각 스님은 강 수석에게 "나라가 홀란스럽고 위태롭다. 특히 불교계에 대한 일이 터져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민심을 잘 살펴 국정운영을 잘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불교계 일각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다는 시각이 있어 몇몇 스님들에게 '정와대에는 나를 포함해 불교 신자인 수석급 3명이 있다'고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경원·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유·초등 - 1차(11월 2일), 2차(11월 16일) 시행 / 중등 : 1차 (11월 9일), 2차 시험(12월 14일) 시행예정
관련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모집!

개강 9월 5일

www.naeayoung.com

교내영교학원 현장수험표

교내영교학원

http://www.naeayoung.com

교내영교학원

교내영교학원